

징금 부과 사안

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

- 서울고법,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-

- 서울고등법원(제7행정부,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약,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)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외 2명(이하 퀄컴 등)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(2017누48)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 일부 승소판결*을 했다.

* 행위3(포괄적 라이선스 등) 관련 일부 위법 판결을 받았으나,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함.

-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델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.

*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2016년 12월 28일자 보도자료 참조

-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(2017년 11월 27일 대법원 2017무791 결정), 본안 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된 것이다.

첨부: 공정위 보도자료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